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애물단지 전략하나

각종 규제 표적·새 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수도권 운행차량 질소산화물 정기검사까지

한 때 높은 연비를 앞세워 질주하던 경유차(디젤차)들이 최근 미세먼지 주범의 오명을 쓰고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면서 애물단지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심지어 새 차가 아닌 운행 중인 경유차(수도권 차량 한정)까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23일 자동차 업계는 일단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 제도에 따른 기술·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전 EU의 '유로6' 기준보다 강화된 신차 배출가

스 기준 '유로6'(질소산화물 0.08g/km 이내)에 맞춰 디젤차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더 까다로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과 '실제도로(Real Driving) 배출허용 기준(RED-LDV)' 도입까지 대비해 신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신차에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저감 장치가 탑재되면 이후 운행 중 검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준의 질소산화물이 검출될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디젤차 규제 강화가 결국 소비자의 디젤차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미 업계는 최근 환경부가 잇따라 더 엄격한 디젤 신차 배기가스 검사 방식과

기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연기하고 시간을 버느라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앞서 6월 29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새로 인증받는 디젤차 모델은 당장 10월부터,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디젤차 모델의 경우 2018년 9월 이후 실내인증시험 과정에 기존 연비·배기가스 측정방식(NEDC)보다 강화된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WLTP가 적용되면, 시험 중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더 자주 갑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테스트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 NEDC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0.08g/km 이하' 기준(유로 6)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 상용차, 르노삼성 등 일부 완성차업체들이 "기준 모델을 내년 9월까지 새 기준에 맞춰 출고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호소했고, 결국 환경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안에서 기존 NEDC 기준에 맞춘 차량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처럼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비싼 저감 장치가 필요한 만큼 필연적으로 디젤차 가격도 계속 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디젤차를 주력 모델로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기준 모델을 새 WLTP 기준에 맞추려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달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변경, 하부 재설계, 성능 최적화 등에 2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은데,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디젤차만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자동차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에 참가, 생산 중인 군용차량을 전시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 군용차량 전시

기아자동차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7)에 참가해 생산 중인 군용차량을 전시·홍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시회에서 기아차는 모하비를 군용 광주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전술차량 등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 방산업

체인 현대로템, 현대위아와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가해 홍보전을 펼쳤다.

기아차 관계자는 "방산장비 신제품 개발 노력과 의지, 우수한 성능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신개념의 미래 지상 자동차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며 "소형전술차량은 동남아, 중남미의 주요 군 인사 등 국내외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 신규 수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더 뉴 GLA'



페라리 '포르토피노'



소형 하이브리드 SUV '니로'

기아차 제공

고급차 시장 '큰 손' 한국 ... 벤츠, 독일보다 많이 팔려

상반기 벤츠 3만7000대·BMW 3200대 판매 페라리·롤스로이스 등 역대 슈퍼카도 잘나가

디젤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건) 여파와 하이브리드(엔진+전기모터)를 앞세운 일본 차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BMW·벤츠 등 독일차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출시된 신형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가 이웃 일본은 물론 본토 독일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릴 정도다.

◇GDP 12위 한국, 세계 2~3위 BMW 5·벤츠E 시장=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 시장 5시리즈 판매량은 약 3200대로 미국(3600대)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3위 영국(약 2500대), 4위인 BMW의 고향 독일(약 1500대)보다

700~1700대나 많을 뿐 아니라, 5위 일본(약 800대)의 4배에 이르는 판매량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 특성상 '5시리즈 롱바디' 모델을 판매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위한 순위에서 빠졌다.

결국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2위(1조4981억 달러)인 우리나라가 3~5위 일본·독일·영국을 모두 제치고 1대 가격이 6000만~9000만 원대에 이르는 고급 중형세단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다. 벤츠도 한국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벤츠는 지난해 5606대를 팔아 4개월 연속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브랜드 순위 정상

을 차지했다. 지난 상반기(1~6월) 한국인은 '고급차'의 대명사 벤츠 차량을 3만7723대나 샀고, 국가별 벤츠 판매량 순위에서도 한국이 중국·미국·독일·영국에 이어 5위에 올랐다. 특히 주력 세단인 E클래스의 상반기 한국 판매량은 독일 본토보다 많았다. 벤츠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 미국 다음 세 번째로 많은 1만8453대의 E클래스를 팔았다. 지난해 상반기 순위(5위)보다 두 계단 높아졌고, 독일·영국·일본이 4~6위로 우리나라 뒤를 이었다.

◇페라리·롤스로이스 등 역대 슈퍼카에도 한국은 큰손=이뿐 아니라 모델별 최저 가격이 1억 원대 중반에 이르는 대형 세단 벤츠 S클래스도 지난 상반기 한국에서 약 2500대나 판매됐다. 역시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8000만~1억4000만 원대 스포츠 세단 '벤츠 CLS' 모델 시

장에서도 한국은 중국, 미국과 함께 3대 '큰손'이었다.

이탈리아 페라리의 경우 불과 5년 전 약 50대에 불과했던 연간 한국 내 판매량이 지난해 두 배 이상인 120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페라리 모델의 국내 최저 판매가는 2억9000만 원대(캘리포니아 T)에 이른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한국은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위에 올랐다. 200대 안팎인 호주, UAE 판매량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차'로 널리 알려진 롤스로이스도 한국 시장의 성장 속도에 놀라는 분위기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롤스로이스의 가격은 가장 싼 모델이 4억9000만(컨버터블 '던') 수준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니로' 미국인이 가장 신뢰

美 컨슈머리포트 조사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는 기아차 니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아차는 또 기아차는 또 브랜드 기준으로 신뢰도 3위에 오르며 약진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차량 64만 대에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기아차 니로가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니로가 뛰어난 연비와 적재 기능이 잘 결합된 차라고 설명했다.

컨슈머리포트는 니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뒷좌석 아래에 있어 뒷좌석이 접혔을 때 평평한 적재 공간을 창출한 다며 연비가 43MPG(갤런당 마일)로 현대 아이오닉이나 도요타 프리우스처럼 뛰어난지는 않지만 좋은 수준이라고 평

가했다.

니로에 이어 스바루 BRZ/토요타 86과 렉서스 ES, 렉서스 GS, 아우디 Q3, 토요타 RAV4, 렉서스 IS, 토요타 프리우스 V, 프리우스 C, 인피니티 Q70 순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 10종에 포함됐다.

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로는 도요타가 평균 신뢰 점수 80점을 얻어 1위에 올랐으며 작년 1위였던 렉서스는 77점을 기록해 2위로 하락했다. 기아차가 71점으로 2계단 상승하며 3위로 올라섰고 아우디와 BMW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59점을 얻는 데 그쳐 10위로 3계단 떨어졌다.

세계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37점으로 4계단 상승했지만, 10위권과는 거리가 먼 21위에 그쳤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임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마루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조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일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평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천리 임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정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